

보성 봇재 그린다향, 그린마켓 역대 최대 매출 달성



보성군은 11월 말 기준 봇재 그린다향과 그린마켓에서 4억 1천4백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77,465명의 누적 방문객 수를 기록하는 등 가장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 매출 4억 원 돌파...방문객 77465명 기록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 90%·방문객 93% 증가한 결과

이는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은 90%, 방문객은 93% 증가한 결과다. 또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 전체와 비교하면 매출은 34%, 방문객은 83% 증가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넘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보성다향대축제, 보성차밭 빛축제, 보성세계차엑스포 등 굵직한 행사들이 개최되지 않거나, 언택트 형식으로 치러진 상황 속에서 이뤄낸 결과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보성군은 봇재의 활성화를 위해 그린다향에 빈백(Bean Bag) 소파를 도입하고, 휴가 시즌 동안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또한 방문객의 성별, 연령별 기호 분석을 통해 녹차팥빙수, 그린티에이드, 말차라떼, 그린티스무디 등 다양한 시그니처 메뉴를 선보였다.

건물 외벽에 대형 간판과 미디어 글라스를

설치하고, 차밭과 소공원, 국도 가로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도 매출과 방문객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문화의 소비를 통해 삶의 만족도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트렌드인 시대"라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봇재, 다향아트밸리, 한국차박물관과 해수욕장센터를 연계해 보성의 역사와 문화, 차 산업을 널리 알리는 복합문화관광지구로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봇재'는 연면적 49,430㎡ 규모로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층에는 삼국시대부터 오늘날의 보성이 있기까지 유구한 보성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보성역사문화관, 2층에는 티 하우스(Tea House) 카페 그린다향과 차 관련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 그린마켓이 입점해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산 파프리카 말레이시아 수출 상차식...수출국 다변화

광양시는 지난 5일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서 광양산 파프리카 말레이시아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이번 말레이시아 총 파프리카 수출물량은 160CT(carton, 5kg)로 지난 11월 해상운송으로 파프리카 40CT를 우선 수출했고 나머지 물량인 120CT는 항공운송으로 수출했다.

시는 2007년부터 파프리카를 본격적인 수출전략 품목으로 발굴해 관련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 육성하고 있으며, 2013년 수출 백만 불을 달성하는 등 파프리카 수출을 통한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와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기존 일본에 편중돼 있던 파프리카 수출을 올해 2월 중국으로 첫 수출을 시작으로 수출국 다변화를 통한 유통망 확보에 힘쓰고 있다.

광양=김현근 기자



여수시, 2022 전라남도 공간정보 워크숍 '최우수상' 수상

여수시가 전라남도 주관으로 지난 2일 영암군에서 열린 '2022년 공간정보 워크숍 연구과제 발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연구과제 발표와 토론, 전문가 특강 등으로 진행되며, 우수 연구과제를 발표한 시군에 시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 스마트도시 여수 조성'이란 주제로 공간정보와 ICT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안전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관련 분야 대학교수, 유관 기관,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연구과제 평가에서 효과성, 창의성 등에 큰 호평을 받아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여수=김현근 기자



순천시, 평생학습도시 20년 미래교육자치도시 비전 선포

순천시는 최근 열린 평생교육&마을교육공동체 한마당에서 '2023 평생학습도시 20주년, 교육비전'을 선포했다.

비전 선포식은 학생, 청년, 성인, 장애인 등 각 계층 대표자 등 여러 주체가 함께 상징물을 쌓아가는 퍼포먼스 형태로 진행됐다.

순천시는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온마을배움터, 미래교육자치도시 순천'을 비전으로 첫 번째 민주시민, 지역성, 공동체 회복 등 가치 반영 교육 강화, 두 번째 칸막이 교육정책 분절을 해소하고 부서 및 시민사회가 전인적 접근의 교육협력, 세 번째 관 중심이 아닌 시민

생활권 근거리 온마을배움터 조성을 과제로 제시했다.

선포식 이후 진행된 학술포럼에서는 공주대 양병찬 교수의 기초강연 및 지역사회 활동가, 교사, 공무원 등의 발제를 통해 연계 협력을 통한 미래교육실현을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순천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을 기반으로 학습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전생애적인 관점에서 교육의 협력이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고흥군, 공직자 대상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공직자 대응능력 향상



급한 응급처치에 관한 실습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실습과정은 응급환자 발생을 가정해 마네킹을 이용한 '30번 가슴압박' 등을 중점 교육했으며,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회 차당 참여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해 실습지도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습에 참여한 공직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시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공영민 군수도 심폐소생술 실습에 직접 참여하며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전 공직자가 이번 기회에 심폐소생술을 정확히 익혀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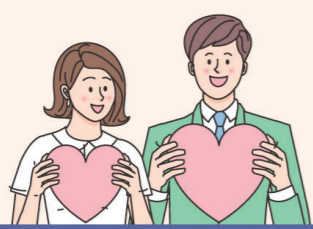
한편, 고흥군은 공직자들의 응급처치 역량 강화를 위해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해 전 공직자 모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고흥군은 응급 상황 발생 시 공직자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5일 고흥군청 우주출에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해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공직자 누구나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고흥소방서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응급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 ▲심정지 환자의 반응 확인 방법 ▲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이론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응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